

거점고 2題... 학교 통·폐합 놓고 지역민 입장차 뚜렷

지역상권 급격 쇠락 주민 결사반대 서명

예산 421억원 확보 무상교육 절호 기회

■ 함평 학교면민 '반대'

함평지역 고교 3곳과 중학교 4곳을 통·폐합해 거점고와 남·여중 각각 1곳씩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사업계획을 놓고 반대 여론(광주일보 3월29일자 11면)이 계속되고 있다. 1600여명의 학교면 주민들이 학다리중·고교의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우려해 최근 이전반대 서명건의서를 함평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학교면 변영희 등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는 거점고 조성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16일 "학교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중·고교까지 이전할 경우 지역이 급격히 쇠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거점고 조성은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점고 조성부지를 현재의 학다리고 부지로 선정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함평교육지원청은 학다리고 부지에 서부특성화중 설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특성화중이 이미 함평읍 성남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지원청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어 함평읍 성남리 옛 성남초교 부지 학교조성에 따른 근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서부특성화중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함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다리고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심해 지금까지는 함평읍 성남리 옛 성남초교 부지에 조성하려 한 서부특성화중학교 조성을 보류한 상태"라며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부지 변경은 가능해 학다리고 부지에 서부특성화중학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신안 도초면민 '찬성'

내년 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안군 도초면에 거점고등학교가 개교할 전망이다. 그동안 거점학교 육성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가 계속됐으나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초거점고는 비급교와, 기숙형 비급중은 도초중과 각각 통폐합된다.

신안교육지원청은 16일 "기숙형 비급중 255억원, 도초 거점고 166억원 등 모두 4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중계축에 들어갈 도초 거점고는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숙형 비급중은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개교할 방침이다.

거점학교로 육성될 경우 이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비는 물론, 수업료, 교과서, 교복, 체육복, 교통비 등 실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

되고 있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비 등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검도, 골프와 같은 체력향상 프로그램과 파부비용, 음악 등 학생들의 끼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모든 경비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자동적으로 통폐합이 될 경우 거점학교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라도 거점학교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상욱 신안교육장은 "거점학교 육성은 학부모 부담 없이 학생들의 재능 개발은 물론 통폐합을 대비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지역민들은 여전히 통폐합으로 인한 인구 감소, 경제위축, 가정교육 문제 등으로 거점학교 육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베란다에 부추 키워주세요” 함평군 대동면 주민들이 16일 오전 비닐하우스에서 부추 화분을 다듬고 있다. 대동면은 오는 26일부터 5월8일까지 열리는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아파트에서도 손쉽게 키워 먹을 수 있는 부추 화분 500여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장애인·임산부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콜택시 대폭 늘린다

도, 관련 조례안 제정

전남도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운영, 광역

이동지원센터(통합 콜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현재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 등 4개 지역에서 41대를 운행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와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운영, 광역

다.

도는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인 158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직무성과 평가노트' 첫 도입

투명성·객관성 중시...개인실적 인사 적극 반영

전남도가 공무원들의 개인별 성과를 기록, 이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6일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실적 중심의 인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평가노트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국장과 실·과장이 평가자가 돼 4급 이하 소속 직원들의 직무성과를 '잘한 일' '미흡한 일' 등으로 그때 그때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무성과 평가나 승진·전보인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사전에 직원 면담을 통해 개인별 평가기록을 알려줘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 등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 예산 확보 노력, 업무 창의성과 전문성 달성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과 비중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조 기정착을 위해 기록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점만 행정지원국장은 "인사청탁없는 깨끗한 공직문화와 실적 중심 인사를 강조하는 도지사의 인사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평가노트를 통해 평소 애로 일 잘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군, 고추 비가림재배 지원 강화

올 하우스 5.1ha 경작 10억 투입

해남군이 고추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병충해에 강하도록 해 농작사용도 줄일 수 있는 비가림 재배 지원에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16일 "지난해 2.5ha에 이어 올해 5.1ha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 모두 48농가가 하우스에서 안정적으로 고추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시도된 고추 비가림 재배로 10a당 노지재배 평균 수확량 260kg보다 2.3배 높은 600kg을 생산했다. 지난 2011년 태풍으로 고추대란을 겪었던 시기의 180kg과 비교했을 때는 3.3배가 된다. 이는 비가림재배의 경우 노지 고추에 비해

식재시기를 한 달여 앞당길 수 있는 데다가 보통 9월까지 5차례 수확하는 것과 달리 12월 초 주까지 8~9차례 까지 고추를 꾸준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추 수확량의 최대 30%까지도 감소 시킬 수 있는 탄저병의 원인인 비와 바람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농약 사용량을 6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비 10억 2000만원(자담 50%)을 투입해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에서는 지난해 5100여 농가가 800ha에서 2000t의 고추를 생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강진·장흥·영암군 합동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서

'삼수강산 농부장터' 개장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강진·장흥·영암 3개군 합동으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에서 삼수강산(三秀江山) 농특산물 농부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농부장터는 각 시군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3개군이 합동으로 농부장터를 개최, 재경향우와 고향,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강진군이 제안한 것이다.

강진군의 유기농 쌀을 비롯한 견고사리, 고추간장절임류 등 농산물과 전통된장, 떡 등 전통식품, 그리고 멸치, 미역, 다시마 분말 등 수산물과 표고버섯 등 임산물이 선보일 예정이며, 장흥군의 허개·참초 가공식품 등을, 영암군은 무화과 가공식품, 잡곡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첫날인 19일에는 강진, 영암, 장흥 등 3개군 재경향우회원과 지역 농협관계자,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를 운영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내달 '장보고속제' 기간

해조류 가능성 제품인 뷰티, 의약 제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완도군 '해조류 산업관' 운영

박람회에는 산업관 이외에도 미래관, 식품관, 홍보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내년 4월11일부터 한 달간 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군이 다음달 3~5일 열리는 장보고속제 기간에 미리 보는 박람회관 주제로 '해조류 산업관'을 운영한다.

산업관은 내년에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전시관 중 하나로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